

제임스 조이스와 바흐쎄의 대화주의: 담론과 주체의 문제

이 석 구

"I am a servant of two masters,...an English and an Italian....

The imperial British State...and the holy Roman catholic...church"

『율리시즈』 17

제임스 조이스 (James Joyce)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화』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이하 『초상화』로 약칭)는 주지하다시피 “의식의 흐름”의 수법을 이용하여 쓰여진 현대소설 중 대표적인 작품이다. 개인의 정신세계의 형성은 그 개인이 경험한 것, 특히 그가 읽고 들은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개인의식의 연구서라고 할 수 있는 『초상화』는 담론과 개인의식의 관계에 대하여 흥미로운 조명을 해준다. 본 논문은 먼저 바흐쎄 (Mikhail M. Bakhtin)의 소설론을 조이스에 적용한 켈쉬너 (R. B. Kershner)의 근자의 비평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다. 켈쉬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비평계 일각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체와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관계에 대하여 갖기 쉬운 환원적·결정론적 시각의 위험을 경계함으로써 “능동적 주체”의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하며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초상화』의 문제적 부분들을 다시 읽고자 한다.

먼저 켈쉬너의 조이스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89년에 출판된 바흐쎄 응용비평서인 『조이스, 바흐쎄 그리고 대중문학』 (*Joyce, Bakhtin, and Popular Literature*)이라는 저서에서 켈쉬너는 조이스 당대의 대중문학이 조이스의 소설에 작·간접적으로 인용되는 예를 고증함으로써 조이스의 소설이

갖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밝히는 작업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는 담론이 개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켈쉬너의 기본적인 시각은 의식형성에 있어 이데올로기가 일차적인 중요성을 띤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흐진 연구가가 굳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가 동의할 이 명제가 아니라,¹⁾ 의식형성에 있어 담론이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말미암아, 모태가 된 담론에 대해 의식이 점차적으로 갖게 되는 비판적이며 능동적인 자세의 중요성이 켈쉬너의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켈쉬너의 『초상화』에 대한 해석에서 잘 드러난다. 주인공 스티븐(Stephen)의 의식의 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 담론의 유형을 분석하면서 켈쉬너는 아일랜드의 민중들 속에서 뿌리를 내린 카톨릭교회의 언어, 중산층의 사고 그리고 스티븐이 어린 시절에 접하게 되는 바이런적 영웅을 다룬 낭만적 내러티브를 주요 담론의 예로 제시한다. 이러한 언어적 환경과 스티븐의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켈쉬너가 사용하는 분석적 틀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역동적 시각보다는 동화와 수용이라는 시각에 편향되어 있다. 이 담론들과 주인공의 의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켈쉬너의 주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인공의 의식은 “그가 듣고 읽은 것의 산물이다”(162). 동일한 맥락에서 켈쉬너는 “스티븐의 자아는 그의 독서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그는 [저항적일 때조차도] 낭만적 이데올로기의 단순한 희생자에 지나지 않는다”(189-90)라는 주장을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의식세계는 상충하는 담론들이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을 벌이는 장소이며, 스티븐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경쟁적 담론들이 무분별하게 충돌하는 일종의 투쟁의 장”(30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할 때에도 그 저항은 개인주체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을 가로지르는 반사회적 언어(“the language of the outlaw,” 20)가 개인의 목소리를 빌어 표현된 것이라는 것이다. 주변의 담론이 행사하는 지배에 대항하는 노력을 스티븐이 기울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300), 개인의

1. *Joyce's Anatomy of Culture*에서 Cheryl Herr 역시 조이스의 작품과 관련하여 개인의 의식작용에 문화가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논의한다.

이러한 노력 역시 낭만적 담론의 영향에 귀결시킴으로써 켄쉬너는 능동적 주체의 가능성을 간과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개인주체를 지배적 담론과 저항적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영향권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그물망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또한 궁극적으로는 주체를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 알튀세에 비견될 수 있는 켄쉬너의 주체에 관한 이론은 전술한 바 있듯이 주체의 능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바흐전에 대한 논의에서 켄쉬너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기로 한다. 의식은 그 주위환경을 이루고 있는 언어의 영향 아래에 생성된다는 주장을 바흐전이 「대화적 상상력」(*The Dialogic Imagination*)에서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능동적 주체의 형성 가능성 자체를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흐전은 먼저 주변의 담론에 대해서 개인이 갖게 되는 “선택의 가능성”을 적극적 개념으로 제시한다. “개인의 자아형성은 타자의 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대화적 상상력」 341)라는 바흐전의 주장이 이를 증거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식의 형성이 주변의 담론에 일차적으로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의식은 담론들이 행사하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노력을 곧 시작하게 된다는 바흐전의 주장이다. 켄쉬너의 「초상화」 연구가 결여한 것은 스티븐이 주위의 담론집단들을 상대로 벌이는 이러한 치열한 노력에 대한 주목이다. 바흐전에 따르면 비판적 의식의 출현은 담론 특유의 대화적 성격에 기인하는데 이 주장은 나중에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초상화」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주인공 스티븐이 자라난 언어적 환경이 그의 의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개괄하기로 하겠다. 스티븐의 정신세계의 형성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론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된다. 그 첫째가 아일랜드 민중의 정신적,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카톨릭교회의 종교적 담론이다. 종교적 담론이 개인의 절대복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바흐전은 이를 “권위적 언어” (「대화적 상상력」 142)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복종의 예는 스티븐의 가족 중 댄티 (Dante) 아주머니에게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댄티는 크리스마스 만찬 도중 케이시 (Casey)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인다. 이 일전에서 신부와 종교의 권위에 대한 댄티

의 맹신이 드러난다. 케이는 아일랜드의 정치지도자였던 파아넬 (Parnell)의 파멸을 두고 신부들을 비난하게 되고, 댄티는 카톨릭교회를 열렬히 변호한다. 이 변호를 인용하면: “옳아요! 옳아요! 신부님들은 항상 옳았어요... 하나님과 종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예요” (38). 교회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댄티는 카톨릭교회 지도자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그 결과 파아넬의 정치적 파멸의 이면에는 본인의 도덕적 책임 외에도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과 교회 간의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관계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 청소년기의 스티븐도 댄티와 유사한 정신적 성장의 길을 밟는다. 그는 교회와의 관계에서, 특히 교회의 교육기관인 교구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사상적 영향을 받는다. 스티븐의 의식 깊숙이 침투한 교회담론의 존재는 스티븐이 성당 감독 선생님의 기도에 자동인형처럼 반응할 때에 여실히 드러난다: “기도가 자신의 머리 위로 울려 퍼졌을 때 그[스티븐]의 기억력은 어떻게 반응할 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오 주여 우리의 입을 열게 하소서. 우리의 입이 당신에게 찬사를 바치오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17-18). 주인공이 교실 내외에서 설교와 종교적 훈육을 계속 받아왔음을 고려해 볼 때, 그가 보인 자동적 반응의 내용이 기성교회의 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못된다. 항상 교회담론을 접하면서 자라난 주인공이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환경에서 자라나는 스티븐은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성직자로 그려보기까지 한다. 주인공의 이러한 백일몽을 인용하면: “그는 천사들과 성인들이 경외하며 엄청난 권력을 침착하고 겸손하게 휘두르는 성직자로 자신을 상상해보았다” (158). 스티븐의 의식에 대한 카톨릭사상의 지배는 “마리아의 기사가 되고픈 [그의] 소망” (105)에서도 드러난다. 카톨릭교의 교리와 세계관을 점차적으로 내면화하게 된 스티븐은 자신의 세속적 일상사까지도 주어진 종교적 사고의 틀 내에서 사유하게 된다. 그 결과 스티븐의 의식세계에서는 연인 엠마(Emma)와의 상상적 화해조차도 교회의 제의적 언어로 표현된다. 이 가상의 의식의 주체자는 다름 아닌 성녀 마리아이다: “스티븐과 엠마여, 두 손을 잡으라. 지금 천상은 아름다운 저녁시간이다. 너희들은 비록 죄는 범하였으나 여전히 나의

아들 딸이나라”(116).

조이스의 『초상화』는 개인의 의식에 대하여 교회가 행사하는 통제와 지배의 양식에 대하여 중요한 안목을 제공한다. 조이스에 의하면 교회에 의한 개인의 지배는 훈육과 처벌이라는 외부적 검열·억압장치 외에도 공포와 죄의식이라는 개인주체 내부의 검열기재에도 의존한다. 외부로부터의 검열과 억압은 주로 교회와 교구학교의 책임자들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스티븐이 이단적인 내용의 에세이를 교실에서 썼을 때, 이는 영어 선생님인 테이트 (Tate)에게 적발되고 이 때문에 스티븐은 교실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받게 된다. 스티븐은 자기가 의도한 바는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간신히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79). 『라블레와 그의 세계』(Rabelais and His World)에서 바흐전이 “최고의 내면적 검열자”라고 부른 “공포”와 “죄의식”이라는 검열·통제기재는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운용된다. 벨버디어 (Belvedere) 학교에서 있었던 피정기간 동안에 스티븐은 죄지는 자들이 지옥에서 겪게 될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된다. 이 설교는 스티븐으로 하여금 평소에 행한 종교적 일탈행위를 기억하게 만들며 설교자가 나열하는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의 긴 목록은 어린 스티븐을 공포로 떨게 만든다. 스티븐은 지옥의 고통에 대한 환상까지 경험하게 되며, 그의 영혼이 너무나 압도당한 나머지 그는 그만 구토하게 된다 (138). 이 끔찍한 형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식에서 해방되기를 강렬히 열망하게 된 스티븐은 한 신부를 찾아가 자신이 욕정 때문에 저지른 행위들을 고해한다. 신부로부터 다시 한바탕 죄의 대가로 치르게 될 형벌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스티븐은 결국 사면을 받게 된다. 그 후 스티븐은 하루의 순간순간을 열렬한 신앙생활에 헌신하며, 자신을 죄의 길로 유혹하는 육체의 욕망들을 철저히 억누르고자 노력한다 (150-51).

카톨릭교회 외에 스티븐의 의식의 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집단은 아일랜드를 식민통치하는 영국이다. 『초상화』에서 영제국주의 언술이 행사하는 영향은 카톨릭교회의 언술만큼 명확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제국주의 담론의 예를 찾기 위해서는 『율리시즈』(Ulysses)를

들추어보는 것이 ~~빠~~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통치를 하는 영국의 이데올로기적 존재는 「초상화」에 그려진 아일랜드의 문화 내에서 여전히 감지된다. 사실 스티븐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일랜드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라는 사실이 아일랜드의 문화를 잠식하는 영국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인이 모국어를 상실하여 지배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그는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표현매체로부터 근원적으로 소외당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 물론 지배민족의 언어를 전략적 의도에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성이 있기는 하나, 각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문화적·역사적 현실이나 그 민족의 의식적·무의식적 염원과 욕망을 가장 잘 표현하도록 발전되어 왔음을 상기해 볼 때, 타문화권의 상징체계에 의하여 자국의 문화나 고유의 민족정서를 표출하려는 노력은 극복하기 쉽지 않은 제약과 왜곡의 위험이 따르는 시도이다. 케냐 작가 응구기 와 씨웅고 (Ngugi wa Thiongo)가 키큐유어로 창작활동을 하는 예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듯,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족주의 작가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지배국의 언어를 배격하고 모국어로 작품을 쓰려고 하는 노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피식민지인이 경험하는 상징체계의 “외래성”에 기인하는 언어적 문제는 스티븐의 생각에서도 드러난다. 단어 “갈매기”의 문제로 영국인 대학학감에게 갑작스런 적개심을 느낀 스티븐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체계의 외래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나의 것이기 이전에 이미 그의 것이다. 가정, 그리스도, 맥주, 주인이라는 말들이 그의 입과 나의 입에서 얼마나 서로 다른가! 이러한 단어들을 말하거나 쓸 때면 나는 항상 정신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친숙하면서도 또한 그렇게 낯설 수가 없는 그의 말은 내게는 항상 습득된 언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언어를 만들지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 언어는 나의 목소리가 근접할 수 없는 곳에 있다. (189)

아일랜드인의 영어사용 역사가 수 세기에 이르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은

영어에 대하여 이질감을 느낀다. 스티븐의 이러한 감정에는 단순히 한 외래의 의사소통 매체에 대하여 그 매체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만이 노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곧 그 외래언어에 의해 영위되는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식민지인이 느끼는 주변인으로서의 정서이다. 제국이 범민족적 동화라는 구호 아래에서 식민지에 실시하는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피지배민족에게는 타문화권으로의 폭력적 편입에 다르지 않음을 식민통치를 받은 적이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동화적” 문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모국어를 보존해 온 민족의 경우 식민통치에 의해 단절된 민족문화의 전통을 부활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식민통치 기간 중 고유의 정서나 이념을 표출할 매체를 이미 잃어버린 민족의 경우, 단절된 문화적 전통을 부활하려는 시도는 민족적 과거와 현재의 단절된 상황을 연결해 줄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따르게 된다. 영국에 의한 아일랜드의 “본격적” 식민통치가 16세기부터 시작되었고 그 결과 앵글로 색슨족의 아일랜드 문화권으로의 유입이 일찍부터 있었기에, 아일랜드 토착어의 부활은 쉽지 않았으며, 또한 아일랜드인의 문화적 자주 운동의 토대가 될-앵글로 색슨족과 엄밀하게 변별될 수 있는-“민족성”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민족성이 야기시키는 문제 때문에 조이스는 기존의 민족주의 진영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 언어라는 것이 단순한 의사표현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한 형태라는 푸코의 주장에 주목한다면, 스티븐이 언어에 대하여 느끼는 문제는 또다른 정치성을 띠게 된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표현매체에 대하여 스티븐이 느끼는 불편함과 그 매체를 모국어로 하는 민족에 대하여 그가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열등의식은 곧 지배민족과의 관계에 있어 식민지 주체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위치가 이미 구조적으로 대등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티븐이 자신을 “영제국과 로마 카톨릭교회라는 두 주인을 모시는 하인”(『율리시즈』 17)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지배민족의 문화적 위상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진술이다.

스티븐이 다녔던 클롱고우즈(Clongowes) 학교에서 벌어지는 크리켓 경기도 아일랜드의 문화를 잠식한 영국문화의 또다른 예라고 볼 수 있다. 크

리켓 경기가 전통적 영국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함을 고려할 때에, 그 경기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행위는 식민지 국민들에게 있어 지배국의 문화 자체에 대한 수용을 의미한다. 이 운동경기는 식민지 통치의 자연스러운 인정을 유도하며 동시에 자국의 민족적 문화와 그 정서로부터 식민지인의 이탈을 용이하게 하여 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아일랜드 소년들이 크리켓 경기를 하면서 내는 소리들이 아무런 주목을 받는 일 없이 주위환경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서 『초상화』의 텍스트 내에 기록된다는 사실이, 아일랜드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지배국의 문화를 지시하는 것이라는 트레버 윌리엄즈 (Trevor Williams)의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논지이다 (316).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같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에서 크리켓이 유행하였다는 사실은 이 대중 스포츠가 갖는 문화적 동화정책의 효율성을 잘 드러낸다.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게일릭 체육연합 (Gaelic Athletic Association)을 1884년에 결성하여 아일랜드 고유의 스포츠를 육성하려고 하였던 노력도 식민지의 영국화를 기도하는 제국의 문화정책에 대한 자구책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카톨릭교회와 식민지 통치국인 영국 외에 스티븐의 의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중요한 집단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다. 민족주의 담론은 스티븐 가족의 크리스마스 만찬에 참여한 케이시의 입에서도 흘러나오며, 스티븐의 급우이자 열렬한 아일랜드문화 부활론자인 데이빈 (Davin)에 목소리를 통해서도 들려나온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위기에 처한 파아넬을 저버린 것을 두고 스티븐이 아일랜드 민중을 탓하자, 데이빈은 스티븐의 비판적 태도를 나무라며 그의 애국심을 의심하는 발언을 한다. “난 너를 이해할 수 없어.... 한 때 네가 영국문화에 반대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었지. 이제 너는 아일랜드 제보자들을 욕하는구나. 너의 이름하며, 너의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네가 아일랜드인이 맞기는 맞나?” (202). 데이빈은 다소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스티븐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는데 이러한 정치적 전향의 유혹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러면 우리 편이 되어다오 왜 아일랜드 민족언어를 배우지 않지? 왜 첫 강의 이후 게일어 수업에 나오지 않았지?” (202).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스티븐이 자라난 언어적 환경은 크게 세 가지 담론집단--카톨릭교회, 식민지 통치국으로서의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 민족주의--으로 나뉜다. 이 중 카톨릭교회의 담론은 신부/선생님의 가르침의 형태로 나타나서 스티븐을 교리에 충실하며 성직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독실한 교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며, 영제국주의 담론은 스포츠 문화의 형태를 빌어 나타나거나--나중에 논의하겠지만--세속적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나타나서, 식민지 국민이 지배국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도록 유도하여 그 지배를 영속화하려는 기도를 한다. 한편 아일랜드 민족주의 담론은 친구의 우정어린 충고의 형태로 나타나서 회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스티븐을 열렬한 민족문화 부활주의자로 전향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면, 개인의 의식형성에 일차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환경으로부터 개인은 과연 자유롭지 못한가하는 질문을 던져 봄직하다. 조이스의 텍스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 대답을 제공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요지이다. 스티븐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조이스는 인간의 의식은 그 형성과정에 있어 주위 담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나, 담론이 개인의 의식에 행사하는 지배는 영속적이지도 않으며, 저항이나 전복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 지배양식이 동질적이지도 치밀하지도 않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총체적인 면을 조종 통제하여 개인의 의식적인 저항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일탈행위도 봉쇄할 수 있는 단일하며 동질적인 초거대 규모의 담론집단을 전제하지 않는 한, 개인에 대한 담론의 절대적이며 영속적인 지배를 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상적 집단은 결국 어떤 상상적 “전체주의 사회”나 개인을 특정 주제로 편입시킴에 있어 실수를 모르는 알튀세적인 “사회구조”와 등가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팻 브랜틀링거 (Patrick Brantlinger)도 『크루소의 발자국들』 (*Crusoe's Footprints*)에서 지적하듯, 이러한 이데올로기 모델에 있어 문제점은 “이데올로기”가 “사회”와 동일 개념처럼 사용되는 것에 있다 (93). 담론이 하나의 거대한 동질적·단성적 네트워크처럼 작용하지 않는 이상, 또한 현실의 모든 종류의 담론들 이면에 존재하는 거대한 공모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이상, 개개의 담론들이 갖는 목적은 필연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에 없으며, 목적을 달리하는 각개의 담론이 표상하는 바나 재현하는 바는 서로 갈등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바흐찐이 “대화주의”(dialogism) 혹은 “카니발화”(carnivalization)라고 불렀던 담론 간의 이러한 갈등적 만남은 개인의 비판적 언어인식을 고양시켜 각 담론의 주장이 갖는 한계나 그것이 은폐하려는 바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고양된 비판적 언어인식은 물론 복수의 담론체계를 전제로 한다. 바흐찐이 『라블레와 그의 세계』에서 주장하듯, “만약 창조적 정신이 단 하나의 담론체계 내에서만 존재한다면, 혹은 복수의 체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헤게모니를 위한 쟁탈전을 벌이는 일 없이 독자적이며 고립된 상태로만 존재한다면, 개인의 언어의식 깊이 자리잡고 있는 교조주의를 극복하기는 어려워진다” (471).

담론의 이러한 갈등관계는 스티븐 가족의 크리스마스 만찬 때에 첨예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만찬석상에서 들려오는 교회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은 각기 자신만이 정의로우며 진실되다고 주장한다. 신부들의 말씀은 그릇될 수가 없으며 교회의 권위는 지상최고라는 덴티의 주장 (32)은 케이시의 민족주의 담론과 스티븐 아버지의 반카톨릭적 담론에 의해 반박당한다. 예컨대, 덴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성령의 말씀”은 “극히 사악한 말” (32)로 규정되며, 그녀가 우상화하는 아일랜드 신부들과 교도들도 비도덕적 인물들이라는 비난을 당한다: “개자식들’ 데달루스가 외쳤다. ‘파아넬이 실수하였을 때 그들은 그를 배반하고 시궁창의 쥐떼처럼 그를 갈기갈기 찢었지. 비열한 개자식들’” (34). 케이시는 아예 종교와 신을 거부하는 발언을 한다: “아일랜드에는 신이 필요 없어!” (39). “스티븐은 자신의 가정에서 저질러진 신과 종교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비방을 성장하여서도 모두 기억할 것이야”라고 덴티가 말하자 케이시는 “그러면 성직자와 성직자들의 인질들이 파아넬을 배반하던 말, 그를 무덤으로 내몰았을 때 썼던 말도 기억하게 하지” (33-34)라고 되받는다. 자신만이 정의와 진실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이 두 담론의 상호모순성은 덴티와 케이시가 부지 중에 예언 아닌 예언을 하듯 스티븐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다.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려는 담론들 간의 전쟁이 개인의 의식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의식 내부에서도 벌어진다.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스티븐의 의식

세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상이한 내용의 충고와 주장을 내세운다. 이 상충되는 담론들을 인용하면:

그는 무엇보다도 신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무엇보다도 먼저 훌륭한 카톨릭교도가 되기를 촉구하는 교구학교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학에서 민족문화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또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민족에게 충성하고 스러져가는 민족언어와 전통을 다시 세울 것을 명령하였다. 동시에 어떤 세속적 목소리는 그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기울어져 가는 가운을 일으킬 것을 명령하였다. (83-84)

이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톨릭교회의 담론과 민족주의 담론은 주인공의 의식세계를 독점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벌인다. 이 둘은 또한 이 방인으로 길도는 주인공을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일랜드 식민지 사회의 위계질서 내부로 편입시키려는 식민지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속적 담론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상이한 주장을 하는 담론의 대화적 관계는 각 담론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그 권위의 허구성을 밝혀 주기도 한다. 바흐첸이 주장하듯, 바로 이러한 대화적 순간, 즉 상이한 담론 간의 상호반박, 상호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개인의 새로운 독자적 의식이 탄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블레와 그의 세계』 471). 스티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담론들 간의 상충적 관계를 인식함에 따라 스티븐은 특정 담론에 대한 자신의 경외적 태도를 점차적으로 재고하게 되며, 자신의 정신을 조종하려는 담론들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게 된다. 예컨대, “[그 목소리들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는 스티븐의 진술은 (84) 맹종을 요구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담론들에 대하여 그의 의식이 취하는 비판적 거리를 지시해 준다.

담론의 대화적 관계는 상이한 목소리를 내는 별개의 형태를 취한 담론들 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바흐첸에 따르면 동일한 하나의 담론 내에서도 상이한 복수의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재적 대화관계”는

권위적 담론의 저항적·전복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즉, 애초에 화자가 표현하려고 하였던 의도와는 무관하게 혹은 그 의도를 오히려 반박·회화·심판하는 목적으로 문제의 담론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의 내재적 대화관계는 스티븐이 성신강림 축일날 헤런(Heron)과 월리스(Wallis)와 나누는 대화 중에서 먼저 드러난다. 교구학교 교장의 목소리를 흉내내려다 실패한 헤런은 스티븐에게 대신 흉내내어 보라고 요구한다. “한 번 해 보아, 데덜러스...너 기가 막히게 흉내낼 수 있잖아. *교회에의 말씀도 오 듣지 않거어도 이교도오나 세에리와 같이 여기라야*”²⁾ (“*He that will not hear the church let him be to thee as the heathena and the republican*”) (75-76). 이 모방발언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교도로 규정하고 이를 책망하려는 애초의 의도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진지한 의도 자체를 패러디하는 이중적 목적에 봉사한다. 스티븐의 장난기어린 고해기도도 이러한 내재적 대화관계의 예를 보여준다. 헤런이 스티븐에게 엠마와의 관계를 고백할 것을 단장으로 치면서 요구할 때에, 스티븐은 헤런의 기분을 맞추어 주기 위하여 고해기도를 그 자리에서 암송한다. 인용하면: “스티븐은 [매로 맞았을 때] 살갓이 근질거리고 고통은 없지만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양순하게 절을 하며 그는 고해기도를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 사건은 어쨌든 잘 마무리된 셈이었다. 헤런과 월리스 모두 고해기도 암송의 불경성에 박장대소했으니 말이다” (78). 이 조그만 에피소드에서 교회의 담론은 신도들을 경고하고,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장려할 때 사용되는 “진지함”을 박탈당한 채, 애초의 발화자인 교회의 권위를 저해하기 위하여 풍자적으로 사용된다.

“내재적 대화관계”는 스티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충고에서도 드러난다. 아일랜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착실한 카톨릭으로 편안하게 사는 게 어떻느냐는 어머니의 간청은 방황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모성애라는 사적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나, 이 간청이 또한 영국의 대아일랜드 통치전략과 카톨릭교회의 민중지배 의도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기도 한다. 아일랜드 사회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추

2. 나영균역 『젊은 예술가의 초상』 참조 (69).

구하라는 충고는 곧 현존하는 사회관계를 인정하고 그러한 사회관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충고는 한 가지 논리적 모순을 내포한다. 아일랜드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은 아일랜드의 정치적 질서를 구성하는 영 제국주의를 인정하여 제국의 모범적인 (이류)시민이 되는 것에, 혹은 적어도 식민통치에 도전하지 않는 문제의식이 결여된 주체가 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순종적인 카톨릭신자가 된다는 것은--당시 아일랜드의 카톨릭교회가 취한 민족주의적 태도를 고려할 때에--영국과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티븐의 어머니가 하는 사랑어린 충고는 중산층의 안정회구적 사고에 침투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교회 이데올로기의 공존을 드러낸다. 이 두 이데올로기 간의 공통분모는 개인주체를 권력행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개인의 시도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이 기이한 공존관계는 민중에 대한 해계 모니를 두고 서로 다툼다는 점에서 물론 경쟁적인 공존관계이며 이러한 경쟁 (대화)관계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양 이데올로기 모두의 존립이 위협받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이스식으로 표현하자면, “영국과 로마의 식민 통치”는 아일랜드 사회의 고질적인 정치문제의 원인제공자였는데, 이 두 외래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은 스티븐의 어머니의 말 속에서 논리적 모순--신부의 명에 순종하는 카톨릭 민족주의자나 이상적 식민지 시민상 간의 모순, 혹은 카톨릭교회가 지향하는 사회질서 (성직자의 절대권위에 기초한 민족사회)와 영제국주의가 지지하는 사회질서 (앵글로 색슨족의 지도력에 의해 보호받는 식민지사회) 간의 모순--으로 재현되며, 그 결과 두 외래집단은 자신이 화해될 수 없는 모순을 구성하는, 모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라져야 될 대립항임을 노출시키고 만다. 이러한 대화적 만남은 카톨릭교회의 담론과 제국주의 담론이 주장하는 바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폭로하여, 각 담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위를 훼손시킨다.

조이스의 텍스트는 담론의 외재적·내재적 대화관계가 특정 담론/이데올로기에 의한 개인·의식의 독점적 지배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담론/이

데올로기가 휘두르는 절대권위를 해체시킬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특정 담론에 대한 개인의 비판적 인식은 담론이 어쩔 수 없이 갖는 대화적 특성을 통해서 고양될 뿐만 아니라, 그 담론이 주장하는 바가 경험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생겨난다. 메리 켈리 (Mary Kelly)가 주장하듯 “언어의 영역은 참으로 불변하는, 모든 것이 고정된 자리를 지키는 동질적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들은 서로의 차이를 항상 각인하는 재현의 체계와 사회적 실천의 복합물이기에 우리는 항상 변화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³⁾ 담론과 현실 간의 괴리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스티븐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교회의 권위와 그것이 표상하는 가치에 대하여 스티븐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와 경외심은 교회의 세속성과 억압성에 대한 경험적 발견에 의하여 저해된다. 예컨대 신부 돌란 (Dolan)은 스티븐이 실수로 깨트린 안경을 두고 하루 일과를 면제받기 위한 잔피라고 단언하며 그에게 심한 처벌을 가한다. 이 사건은 평소에 신부를 신의 의지의 공정한 집행인이라고 믿었던 주인공을 그 환상에서 충격적으로 깨어나게 만든다. 교회의 억압성에 대한 발견은 고해성사와 관련해서도 이루어진다. 고해를 통해서 이미 용서받은 적이 있는 죄를 계속해서 고해하라는 교회의 요구는 교회가 죄인의 참회와 용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부에 죄의식과 수치심을 계속 재생산해냄으로써 개인에 대한 지배를 영속화하려 한다는 인상을 스티븐에게 준다. 교회와 고해성사의 억압적인 면에 대한 스티븐의 생각을 인용하면:

그는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전에 먼저 고하라는 신부의 말을 들었다. 그는 모욕과 수치심을 느끼며 과거의 죄상을 다시 이야기하였고 다시 회개하였다.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결코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리라는 생각은 스티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 죄의식의 불안함이 항상 나를 따라 다니리라. 나는 고해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고해하고, 회개하고, 또 무용한 용서받기를 계속해야 하리라. (153)

3. Paul Smith의 *Discerning the Subject* 67 재인용.

고해성사의 억압적 기능에 대한 스티븐의 인식은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교회의 가치관에 대하여, 그리고 죄와 참회 그리고 구원이라는 종교적 시나리오 자체에 대하여, 회의심을 품게 만든다. 이러한 회의심은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성직자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의문을 동반하게 된다. 한 때 자신의 정신세계에 자기정체성을 부여하였던 카톨릭교회와의 결별에 대하여 스티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들어 [교구학교 선생님들의] 판단 중 어떤 것들은 유치하게 들렸고,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익숙하였던 한 세계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며 또 그 세계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일종의 연민과 유감을 느꼈다” (157).

조이스의 텍스트에 의하면, 비록 개인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의 내부에 이미 자리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채색되어지는 경향이 있음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나, 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개인의 특정 주체로의 편입은 결코 종결적일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와 주체의 관계에 대한 폴 스미스 (Paul Smith)의 주장은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언어에 의한 주체의 구축은 가변적 요소를 내포하는 임시적인 것이다 (71).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생산해내며 또한 그 주체의 사소한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 거대한 통제구조로서 기능한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한 이데올로기가 제공하는 세계에 대한 해석체계와 경험 영역 사이의 괴리를 발견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스티븐의 비판적 사고와 반항은 이러한 발견을 입증한다. 켈쉬너는 스티븐의 자기주장 (self-assertion)을 그가 읽었거나 보았던 텍스트들, 『몬테크리스토 백작』 (*The Count of Monte Cristo*)과 연극 『잉고마르』 (*Ingomar*)나 『리용의 귀부인』 (*Lady of Lyons*)과 같은 낭만적 내러티브의 영향에 귀결시킴으로써 설명을 한다. 물론 켈쉬너의 주장대로 스티븐의 뇌리에 새겨져 있을 지도 모르는 낭만적 이미지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낭만적 내러티브가 이성에 대하여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공에게 환상적 이미지를 제공해 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첫 연인인 멜세데스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티븐은 한 때 그려보기도 하였으며 (62-63, 64-65), 『리용의 귀부인』에 등장하는 남

자 주인공의 사랑의 대사가 그의 의식에 떠오를 때도 있었다. 뜨거운 열정을 못 이겨 열에 들뜬 상태에서 흥등가를 방황할 때, 스티븐은 이러한 내러티브들을 기억하게 된다 (99). 이러한 점에서, 이 정념의 내러티브에 대한 기억이 스티븐의 “일탈적” 행동을 부추겼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탈선”을 “낭만적 이데올로기”가 스티븐의 의식을 사로잡은 결과로 보는 것은 --주인공이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할 때에도 그 저항은 지배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식을 가로지르는 반사회적 언어가 개인의 목소리를 빌어 표현된 것이라는 켈쉬너의 주장을 여기서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본능적 욕구가 갖는 자발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사실, 아이린 (Eileen)의 회고 가늘며 부드러운 손에 대한 스티븐의 집착에서 드러나듯 (35), 켈쉬너가 지적한 낭만적 내러티브들을 읽기 훨씬 전인 유년 시절에, 주인공은 이성애에 대한 동경과 욕구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스티븐이 작품의 말미에서 보여주는 기성의 정치세력과 일체의 제후관계를 맺기를 거부하는 행위까지 이러한 “낭만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하나의 단서에 너무 많은 해석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설득력을 잃고 만다. 자신이 저지른 일탈적 행동 때문에 스티븐이 훗날 처절할 정도로 고통받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고려할 때에, 그의 일시적인 욕구의 분출을 반항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카톨릭교회에 대한 스티븐의 성숙된 대응은 이러한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일탈행위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한 후에, 고해를 계속 강요하는 교회의 억압적 기능을 “경험”한 후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의 비판적 사고에 연원하는 것이다.

조이스에 대한 켈쉬너의 뛰어난 상호텍스트적 연구서에서 강조되지 못한 점은 담론과의 관계에서 스티븐이 보여주는 이러한 비판적 “수용과 적용”의 태도이다. 성숙된 스티븐이 다양한 담론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는 바흐첸이 제시하는 작가의 개념에 근접한다. 바흐첸에 의하면, 작가란 각가지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텍스트 내에 배치하나, 훌륭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하나의 조화로움으로 통일하여 내듯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특정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상이한 담론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조합하여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 내는 예술가이다. (『대화적 상상력』 298, 300, 314). 바흐전의 작가상에 비견되는 스티븐의 성숙한 모습은 미학적 담론에 대한 그의 수용태도에서 드러난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학감과의 대화에서 스티븐은 기존의 미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저는 현재 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한 두 가지 생각을 지침으로 삼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낼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생각을 저 자신의 필요와 지침을 위해 이용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 그 지침의 등잔이 그을음을 내거나 혹은 냄새를 내면, 저는 등잔의 심지를 잘라보겠습니다. 또 그 등잔에서 나오는 빛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팔고 다른 등잔을 살 작정입니다. (187)

스티븐의 이러한 진술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어떤 내러티브에서 묘사되는 사건과 그것을 읽고 난 후 개인이 취하는 행동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 내러티브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 반대한다. 만약 스티븐이 낭만적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러티브의 결을 가로지르는 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의 정신이 좌우되어서가 아니라,--기존의 미학에 대한 그의 전략적 사용에서 잘 드러나듯--그가 판단하기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자신이 처한 상황의 타개에 도움이 되기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잠정적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담론에 대한 개인의 비판적 수용태도에 관하여 조이스가 제공하는 이러한 안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의 (무)의식이 이데올로기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조종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은, 문화라는 가변적이고도 역동적인 영역을 하나의 혹은 소수의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장악한 밀폐된 공간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이 이데올로기에 “동의”할 가능성과 그리고 설사 “동화”되더라도 동화되는 “정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계주의적이며 동시에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주체에 대한 이 환원적 시각은 개인이 보여주는 한 이데올로기에서

다른 이데올로기로의 전환을 설명해 주지 못하며, 이러한 시각이 갖는 문제성은 그렇게 철저히 작용한다고 여겨지는 이데올로기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시각이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고려해 볼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개인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통제가 철저하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그러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분석가는 스스로가 설 자리를 없애고 만다는 점에서 그의 논거는 자가당착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이스의 『초상화』는 개인의 비판적 사고로 인하여, 또한 담론의 대화적 성격으로 인하여, 특정 담론에 의한 개인주체의 독점적·영속적 지배는 불가능함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스티븐의 성장 스토리는 자신이 속한 언어의 영향권 내에서도 개인은 비판적 사유와 창의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교회의 권위적 담론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유하게 된 스티븐의 모습은 벨 버디어 학교의 교장이 성직에의 입문을 제의할 때에도 드러난다. 교장은 성직자가 엄청난 권력과 권위를 휘두른다는 사실을 들어 스티븐을 회유한다. “세상의 어떠한 왕이나 황제도 신을 섬기는 성직자의 권력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천상의 어떤 천사나 천사장도, 심지어는 성녀 마리아조차도 신을 섬기는 성직자의 권세는 갖고 있지 못하다” (158). 스티븐은 이 제의를 거절하는데 이러한 거절의 이면에는 교회의 숨겨진 세속성과 억압성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인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 기성의 제도나 그 어떠한 타자에도 의존할 수 없다는 그의 깨어나는 독자적 의식이 이러한 거절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

그의 운명은 사회나 종교적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교장 선생님의 호소가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지혜를 배워야 하거나 혹은 타인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더라도 이 세계의 많은 미혹 속을 방황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도록 운명지워졌다. (162)

타인의 지식을 전수받을 때조차도, 자신을 미혹하는 무수한 올가미들 사이의 방황을 거친 후, 즉 이러한 방황을 통하여 검증한 후에야, 타자의

지식을 수용하게 된다는 스티븐의 생각은 주위의 언어환경에 대한 그의 성숙한 대응태도를 암시한다.

스티븐에 의한 정신의 독립의 천명은 그의 “non-serviam”의 발언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용하면, “나는 내가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을--그것이 가정이든, 조국이든, 혹은 교회이든--그것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다”(247). 스티븐은 교회를 “기독교국의 뒷치닥거리 하녀”(220)라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인위성과 외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크랜리 [Cranly]가 우리의 종교라고 불렀던 기독교는 나의 동포가 아니라 이탈리아인들이 만든 것이지”(249). 교회에 대한 스티븐의 반항은, 수백 년에 걸친 아일랜드의 독립투쟁사에 있어 카톨릭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비록 사실이기는 하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회는--적어도 조이스의 눈에는--민중들을 통제하며 억압하는 하나의 권력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⁴⁾ “로마의 압제에 의해 우리의 영혼이 포로된 상태에서, 영국의 압제를 비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⁵⁾라는 자신의 주장에서 드러나듯, 조이스에게는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 못지 않게, 로마 카톨릭교회로부터의 해방도 절실한 것이었다. 조이스 당대에 카톨릭교회가 성적 담론의 유포를 통하여 행사한 억압에 대하여 데이빗 케언즈와 손 리차드는 『아일랜드 쓰기』(*Writing Ireland*)에서 푸코의 시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아일랜드의 카톨릭교회 유관기관들은 성을 타락적이고, 기계적이며, 짐승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담론을 무수히 유포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구석구석을 통제하는 권력장치의 일부로서 기능해 왔다 (117-18). 카톨릭 교회의 억압적 기능은 존 밀링턴 싱 (John Millington Synge)의 극작품에서도--대표적인 예가 『서쪽나라에서 온 바람둥이』(*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이다--비판의 대상이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예컨대 “자매” (“The Sisters”)에서--등장하는 성직자가 죽음과 쇠퇴의 이미지로 표현되

4. 기성의 신념체계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적인 태도에 주목한 마하피(V.

Mahaffey)는 조이스를 “an iconoclastic rebel”이라고 부른다 (26).

5. D. Manganiello의 *Joyce's Politics* 17 재인용.

는 것에서 잘 드러나듯, 조이스도 아일랜드의 성직자들을 한편으로는 그들의 정신적 무력증과 경직성 때문에, 또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에 대한 그들의 억압 때문에 비판하였다. 조이스의 이러한 비판적인 면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도 검출되는데, 이는 당시 카톨릭교회와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에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권위적 부름에 대하여도 스티븐은 결연한 거부의 반응을 보인다. 민족의 이름을 들며, 자신들과 하나가 되라는 급우 데이빈의 요청에 스티븐은 “너는 너희들과 하나가 되라고 나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기 전에 먼저 네가 저주받는 꼴을 보겠다” (203). 데이빈과의 대화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에 대한 스티븐의 비판적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비평가들은 민족문화 부활운동에 대하여 스티븐이 갖는 부정적 태도 그리고 아일랜드를 떠나겠다는 그의 결심을 조이스가 유럽으로의 떠나간 사실과 연관시켜 주인공을 세계주의자로 간주하고 이러한 행위의 정치적 함의를 조국의 정치적 현실을 등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비평경향은 조이스 당시 성행하였던 아일랜드 민족문화 부활운동들의 성격과 그 문화운동들이 저마다 기치로 들고 나온 아일랜드인의 민족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케언즈와 리차즈가 아일랜드 문화연구에서 드러내듯,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발하였던 아일랜드 민족문화 부활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종교적으로 영국국교나 신교에 소속되며 16세기 이후에 아일랜드로 이주해온 영국인의 후손인 앵글로 아이리쉬가 주창한 부흥운동이며, 또다른 하나는 카톨릭교회에 소속되며, 16세기 이전에 아일랜드에 정착하여 토착문화권에 동화된 영국인의 후손과 아일랜드 원주민 계층을 대표하는 급진적 민족주의 세력이 결성한 게일릭 리바이벌 운동이다. 종교적·정치적 갈등과 더불어 이 양대 민족문화 운동가들은 아일랜드 민족성에 대하여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차이점이 어찌하였거나, 양 진영의 민족성에 관한 정의는 궁극적으로 아일랜드 농민들을 개념적 근간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조이스가 어느 한 진영에도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양 진영의 이상주의적 편향 때문

이었다. “고대 아일랜드의 죽음을 기리는 노래가 불리워진지 이미 오래며, 그 묘석도 이미 봉인되었다”라는 조이스의 유명한 발언은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다. 조이스가 판단하기에, 앵글로 아이리쉬가 지향한 고대 아일랜드의 농민이나 게일릭 리바이벌 운동이 상징한 편협한 카톨릭적 “순수 민족성” 모두 시대착오적이며 이상주의적인 발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초상화』에서 드러나는 아일랜드 농민에 대한 “문제적” 묘사는, 기존의 문화부활운동이 갖는 이상주의적 경향을 부정적 현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제어하려는 조이스의 전략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기성의 민족주의 담론에서 아일랜드가 지향해야 될 미래를 찾지 못한 조이스의 곤혹스러움은 민족성의 검토와 재정립을 위하여 아일랜드를 떠나기로 마음먹는 스티븐의 결심에서 배어난다. 스티븐의 표현을 빌면, “나는 백만 번이고 경험적 현실을 직면할 테다. 그리하여 나의 영혼의 제련소 내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의 민족의 의식을 버리어 낼 것이다” (253). 스티븐의 출발은 결국 바흐전적인 명제,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 문화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완전한 이해는 타자의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완성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세대 학교〉

인용 문헌

- 제임스 조이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등대로』. 나영균 외 역. 『세계문학전집』 45. 삼성출판사, 1976.
- Bakhtin, Mikhail M. *The Dialogic Imagination*. Ed. Michael Holquist. Tran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ustin: U of Texas P, 1984.
- , *Rabelais and His World*. Trans. Hélène Iswolsky. Bloomington: Indiana UP, 1984.
- Brantlinger, Patrick. *Crusoe's Footprints: Cultural Studies in Britain and America*. New York: Routledge, 1990.
- Cairns, David & Shaun Richards. *Writing Ireland: Colonialism, Nationalism and Culture*. Manchester: Manchester UP, 1988.
- Herr, Cheryl. *Joyce's Anatomy of Culture*. Urbana and Chicago: U of Illinois P, 1986.
- Joyce, James. *Dubliners*. 1914. New York: Penguin, 1976.
-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1916. New York: Penguin, 1964.
- Kershner, R. B. *Joyce, Bakhtin, and Popular Literature: Chronicles of Disorder*.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89.
- Mahaffey, V. *Reauthorizing Joyce*. Cambridge: Cambridge UP, 1988.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 Smith, Paul. *Discerning the Subject*. Minneapolis: U of Minnesota, 1988.
- Williams, Trevor L. "Dominant Ideologies: The Production of Stephen Dedalus." *James Joyce: The Augmented Ninth*. Ed. Bernard Benstock. Syracuse, N.Y.: Syracuse UP, 1988.